

통·폐합 기관 이전 대상지 확정 급하다

저작권위·콘텐츠진흥원 등 승인 지연...나주 혁신도시 차질

정부 공공기관 이전 157곳 중 106곳 마무리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한 1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이 4일 확정되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175개 가운데 106개가 마무리돼 공공기관 이전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나주혁신도시(광주·전남 혁신도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통제합된 이전 예정기관의 이전 확정 이 지연되면서 애초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어, 통제합 기관의 이전대상지를 조기에 확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역발 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한국가 스안전공사 등 18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계획을 이날 확정했다.

이날 18개 기관의 이전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57개 지방 이전계획 수 립대상기관 중 106개의 이전 계획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지방 이전계획이 승인된 혁신도시는 ▲강원 4곳 ▲충 북 전북 각 3곳 ▲경북, 경남, 대구 각 2곳 ▲부산, 울산 각 1곳 등이다.

그러나 기관 통제합을 이유로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 확정이 지연됐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 흥원과 이번에도 제외됐다.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은 모두 17개로, 이중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기관의 이전 승인이 완료됐 다. 하지만,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 로그램보호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 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 4개 기관의 이전 승인이 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공식 통합 돼 이전 계획을 준비중이다. 이 두 기

관은 애초 나주혁신도시로의 이전할 기관이었기 때문에 공식 통합이 된 만큼 조만간 이전 승인을 신청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 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게임산업 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한국소프트 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사업단 등 과 지난 5월7일 통합돼 공식 출범했 지만, 아직까지 이전 계획 승인이 이 루지지 않고 있다.

나주혁신도시 관계자는 “이전 기

관 중 통제합 기관들만 이전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애초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통제 합 기관의 이전 대상지를 조기에 확 정해야 하며, 이전 계획이 승인된 기 관에 대해서는 점검과 평가를 통해 빨리 이행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나머지 51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지방이전계 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5일 나주시 금천면 혁신도시 건설 예정부지에서 열린 가족 데 마체럼 행사 도중 현장 관계자로부터 혁신도시 조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北 개정헌법, 국방위원장 권한 강화

김정일 美 여기자들에 특사권 행사

종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권한

북한이 지난 4월 제12기 최고인 민회의 1차회의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을 통해 특사권을 종래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권한에서 국 방위원장의 권한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5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결과에 대한 보도 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회 주의헌법 제103조에 따라 노동교

화형을 받은 미국 기자 2명에게 특 사를 실시하여 석방할 데 대한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 회 위원장의 명령을 내리시었다” 고 밝혔다.

북한은 1998년 9월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하면서 헌법을 개정, 제103조에 5개 조항으로 국방위원 회의 임무와 권한을 명시했지만 특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제110조의 17항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중 하나 로 “대사권과 특사권을 행사한다” 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과거 정권 기 념일 등 주요 계기에 대외면회를 실 시할 때면 헌법에 따라 최고인민회 의 상임위원회 이름을 내세웠다.

북한은 아직 지난 4월 개정한 헌 법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김 위 원장이 미국 여기자들에 대한 특 사를 실시토록 국방위원장이 명령 했다는 것은 특사권의 소재가 국 방위원장으로 옮겨진 것을 확인시 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 스

“START-1 시한 내 마무리”

〈전략무기감축협정〉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 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 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 정을 오는 12월 5일 시한 만료 전까 지 반드시 마무리하기로 재차 약속 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 각)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생일 축하 인사말을 건넨 뒤 양국 관 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5일 크렘린 대변인실이 통화 내용을 흘레 이지에 공개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정상 회담에서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를

소중히 기억하고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으로 첫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고 말했 다. 그는 또 “모스크바 정상회담 결 과는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양국 간 건설적 협력 구축 가능성에 대해 이 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덧붙 였다.

크렘린과 백악관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START-1 후 속 협정을 위한 협상에 가속도를 내 도록 양국 협상단을 독려하기로 했 으며 시한 내 건설적인 결과물이 만 들어지도록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

미·러 정상 전화통화

북핵 문제 언급 안해

다. 두 정상은 지난 7월 6일 정상회담 에서 START-1 후속 협정 초안의 양 해각사에 서명하고 새 협정이 발효되 고 7년 안에 양국의 핵탄두 수를 1천 500~1천675개로, 대륙 간 탄도미사 일(ICBM) 등의 발사 수단도 500~1 천100개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또 이날 통화에서는 전쟁 1주년을 맞아 위기감이 고조되는 그루지야 상 황을 논의했으며 이란, 중동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나 북핵 문 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 다고 크렘린은 전했다. /연합뉴 스



6일 히로시마 평화추모공원에서 열린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 에서 한 한국인여성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연합뉴 스

전통 문화 상품 사업 본격화

광주문진원, 28일까지 지원 대상 공모

광주 지역의 전통 문화·예술을 문 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문화콘텐 츠 특성화브랜드 상품 발굴 지원 사 업’이 본격 추진된다.

5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09 문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가운데 하나인 문화콘텐츠 특 성화브랜드 상품 발굴 지원 사업을 5 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광 주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토대 로 문화상품을 개발해 이를 아시아문 화중심도시 광주의 대표 브랜드로 육 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 원이 맡게되며, 지원 부문은 ▲지역

문화브랜드 전략 및 상징콘텐츠 개발 (3억원) ▲대표문화상품개발(2억원) 등이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자진흥원)은 오는 28일까지 홈페이지(www.gitc.or.kr)를 통해 지원 대 상을 공모한다. 사업설명회는 7일 오후3시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8층에서 열린다.

최종 선정된 지역문화브랜드 전략 개발 부문에서는 1개 과제당 1억5천 만원이 지원되며, 성과 평가를 거쳐 2 차년도 상품개발까지 지원받을 수 있 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바마 케냐 출생? 음모론 재확산

CNN 진행자 돕스 불 지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서 출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케 나에서 태어났다는 정치적 음모 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CNN의 진행자 루 돕스가 최근 방송에서 오바마가 출생의 의혹 을 없애려면 더욱 자세한 출생 기 록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핵국은 음모론을 부추겨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것.

조지아주 발도스타 주립대의 제임스 플랜트 교수는 4일 미국

의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 터(CSM)와 인터뷰에서 CNN의 루 돕스가 오바마의 출생에 관해 언급한 것은 정치적 음모론으로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CNN의 조사담당 직원들을 포 함해 수많은 언론사와 언론단체 들이 오바마가 지난해 대선 과정 에서 제시한 출생증명서를 통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결론 을 내렸는데도 루 돕스가 한물간 음모론을 정당한 것처럼 오도하 고 있다는 게 플랜트 교수의 주 장이다. /연합뉴 스

히로시마 원폭 한국인

일본서 희생자 위령제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64년 을 하루 앞둔 5일 한국인 희생자들을 주도하는 위령제가 히로시마 평화기 념공원에서 열렸다.

위령제에는 관철현 주일대사와 재 일본대한민국민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 다고 주일대사관측이 전했다.

권 대사는 추도사에서 “과거의 불 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세계 모든 인류가 평화 속에 공존, 공영할 수 있는 국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 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주최측은 이날 2천647명의 한국인 사망자 명부를 위령비에 봉납했다.

/연합뉴 스

영화안내 HAPPY TIME

인기영화 즐거운시간 보내세요

메가박스

구.련원국사거리 ♥에메1544-0600

M관	해운대 (12세)	최고급관
2관	국가대표 (12세)	
3관	국가대표 (12세)	
4관	업(전제)/지.아이.조(15세)/트랜스포머(12세)	
5관	국가대표 (12세)/지.아이.조 (15세)	
6관	블러디 발렌타인 (18세)/차우 (18세)	
7관	메디엄 (15세)/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	
8관	해운대 (12세)/10억 (15세)	
9관	해운대 (12세)	

•이프루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2시간 30분 초과시 정액요금 부과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화관빌딩)

1관	해운대 (12세)	
2관	업-더빙(전제)/업-더빙(전제)/메디엄 (15세)	
3관	지.아이.조 (15세)	
4관	지.아이.조 (15세)	
5관	국가대표 (12세)	
6관	국가대표 (12세)	
7관	해운대 (12세)	
8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전제)/차우(18세)	
9관	해운대 (12세)	
10관	해운대 (12세)	

[상무점] 평일 휴일 2000원 할인! 중복할인 가능!! 1588-7941 [상무점] 매일 팝콘 무료증정!

하미 시네마

고려시청 고객관동 •www.hamcinema.co.kr/ 1588-9120

전대후문 하미스포럼 ☎ 267-7777

1관	업(전제)	
2관	해운대 (12세)	
3관	메디엄 (15세)	
4관	킹콩을 들다(전제)/트랜스포머 (12세)/10억 (15세)	
5관	해운대 (12세)	
6관	차우 (18세)	
7관	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	
8관	국가대표 (12세)	
9관	국가대표 (12세)/지.아이.조 (15세)	
10관	해운대 (12세)	

•5000대 넘는 주차장(3시간무료) •305 매일 심야
•이동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하미 수영장 289-5757 •하미 생활장 282-0825
•하미 골프장 281-5000 •하미 당구장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특별있는 영화선정 •www.cinus.co.kr/ 1544-0070

1관	10억 (15세)	
2관	차우 (18세)/국가대표 (12세)	
3관	해운대 (12세)	
4관	업(전제)/해리포터와 혼혈왕자 (전제)	
5관	지.아이.조 (15세)	
6관	국가대표 (12세)	
7관	해운대 (12세)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무릎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북처 사무나(오전5시~오후1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세로로 7관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

1관	해운대 (12세)/차우(18세)	
2관	해운대 (12세)	
3관	국가대표 (12세)	
4관	지.아이.조 (15세)	
5관	10억 (15세)/차우 (18세)	
6관	해리포터 (전제)/메디엄 (15세)/업(전제)	

•무릎주차 3시간 (상무점) 또는 충무로대우시장 전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